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임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필리핀 바탄주에 있는 발랑가시티에 센터가 위치해있고, Vista mall 바로 앞에 있어서 생필품을 사거나 외식, 카페 등을 가기가 편합니다. 평일에는 일찍 닫아서 워터파크같은 수영장인 퍼블릭 풀은 주말 자유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프라이빗 풀은 매일매일 사용하며 수영했어요. 바베큐장도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고 거기 테이블에 자주 앉아 과일도 먹고 놀았어요. 분위기는 밤에 순찰도 자주 돌아다니시고 센터 입구 쪽에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하고 편안했어요.</p>
수업	<p>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총 8시간 수업을 들었고 3시간은 1:1 수업, 4시간은 그룹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보는데 그걸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 1:1 수업은 Reading 2시간과 Interchange 1시간이고 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2시간, Let's talk과 뮤직비디오 만드는 MMC 수업 각각 1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다들 정말 착하시고 좋았습니다. 교재만을 기준으로 수업을 나가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걸 답변해주시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며 영어공부도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제는 뮤직비디오 만드는 것 밖에 거의 없었는데, 처음엔 막막했지만 조원들과 다같이 재미있게 찍어서 만들어나가니 나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Activity	<p>평일에도 게임하는 액티비티나 체육대회,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주말에는 Sinagtala 리조트에 놀러가서 줌라인, 자이언트 스윙 등 놀이기구를 타고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했습니다. 놀이기구는 거기서 따로 결제해야합니다. 요트 투어로 수빅 베이로 하루 갔다 왔었는데, 요트 투어 후에 7시간 정도 수빅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요트는 추가비용 없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처음 도착하고 일주일 내내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왔었고, 나머지 2주 동안은 비는 거의 안 내리고 햇빛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선크림과 우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비 내린 뒤에 모기가 정말 많아졌었으니 모기약도 꼭 챙겨가야해요.</p>
안전	<p>해외에서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니지만, 발랑가시티는 외국인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로 가득한 도시여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현지인들이 숙소로 귀가하는 길을 걱정해주는 분위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돌아다니거나 할 때도 무섭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p>
숙소	<p>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기숙사는 수업 듣는 곳 바로 옆이어서 좋았지만 벌레와 도마뱀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 흠입니다. 다음 날이 주말일 때만 통금 12시고, 나머지 날짜에는 통금 11시였습니다. 수영장이 같이 있어서 더울 때 바로 수영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p>
식사	<p>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식당에서는 한식과 현지식이 섞여서 나오고, 김치는 항상 나옵니다. 저녁은 시내 나가서 선생님들께 추천받은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도 자주 먹었습니다.</p>
교통	<p>수업 듣는 곳과 기숙사는 거의 같은 건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까웠고, 시내에 나갈 때 트라이시클 타고 10-20분 정도 걸렸었어요. 가격은 늘 흥정 해야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현금	300달러	환전해서 사용
카드	330,000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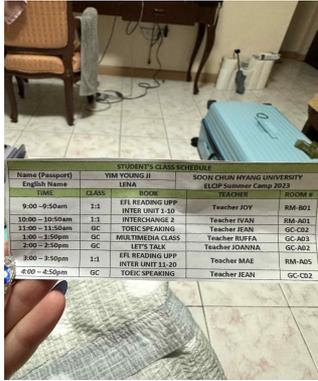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숙소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청소도 잘 해주시고 빨래도 정해진 날짜에 해주십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 특성상 벌레가 많아 벌레 기피제 같은 것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 경비는 제가 원래 이것저것 많이 사는 편이라 이것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다녀왔는데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영어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관광지가 아닌 필리핀을 여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매우 친해져서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들 착하시고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이 생겼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업 스케줄 표



첫 바베큐 파티



스포츠 데이 배구 경기 중



즐리비에서 생일파티



매일매일 수영



BPSU에서 필리핀 학생들과 문화 교 교류
액티비티한 날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Barangay Central Roman Superhighway, City of Balanga, Bataan, 필리핀
수업	수업은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었고, 1대1 선생님 3분, 그룹 선생님 3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대1 수업은 리딩수업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그룹수업은 토익스피킹 수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텐션이 높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영어를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Activity	스포츠데이 = 금요일에 한번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구, 피구, 다트 요트투어 = 일요일에 수빅에서 요트를 타고 구경한 다음 수영 스팟에 멈춰서 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해가 짙어지는데 비가 내리고, 또 비내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랬습니다.
안전	시큐리티분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있어서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숙소	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남자 2인실에서 생활했는데, 벌레도 안나오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좋았습니다.
식사	기숙사식당(<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checkbox"/>) 주로 기숙사식당에서 끼니를 다 해결하고 외부식당에서 추가로 밥을 사먹었습니다.
교통	SM몰, 비스타몰, 시티홀을 주로 갔었고 비스타몰은 도보로 3분정도, SM몰, 시티홀은 트라이시클(오토바이)로 한 10분정도 걸렸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250달러	335,750.00	식비, 추가 생필품 구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별레스프레이 꼭 챙겨오세요, 우산필수, 약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상비약 같은거 꼭 챙겨오세요.

선생님들이랑 정이 많이 들고, 같이 갈 어학연수 멤버들이랑도 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소소한 선물 같은걸 해주려면 한국에서 좀 괜찮은 편지지나 선물들을 미리 사오는게 좋은거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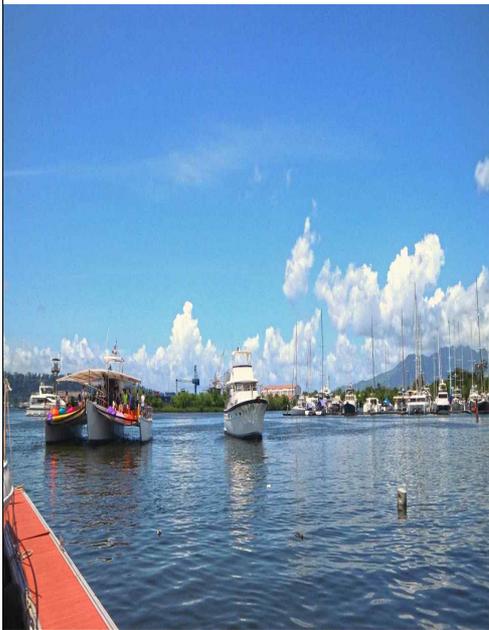
사실 영어 실력 향상에는 큰 기대를 안하고 지원했었는데, 생각보다 부수적인 활동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팀활동도 많고, 전반적으로 단체활동이 많아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정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고, 생각보다 정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타 대학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전반적으로 즐거웠던 어학연수 였습니다.

선생님 모두 좋으시고, 학생들을 위하는게 눈에 보일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모두 학생들 한명 한명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친해지고 싶어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케줄이 좀 빡빡했던 것 같은데 3주동안 정말 후회없이 공부 외의 활동들도 알차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수빅 요트투어</p>	<p>가든 오브 올리브스 기념공원</p>
	
<p>시낙탈라 수영장</p>	<p>SM 몰 MESA 식당에서의 바베큐</p>



라비스타 들어오면서 한 컷



퍼블릭 마켓 과일가게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발랑가 시티 바탄에 위치해있으며 숙소 바로 앞에 비스타 몰이 위치해있어 마트나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리조트 내에서 지내며 공부하는 것이라 수업장소와 도보 1분 거리이며 수업 후에 자유시간에 전용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수업	<p>처음 레벨테스트 진행 후 각자 레벨에 맞게 교재가 주어지며 하루 7시간 수업 중 3시간은 1:1 수업으로 진행되고 4시간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된다.</p> <p>개인 수업은 READING 2시간, INTERCHANGE 1시간으로 진행되고 그룹 수업은 TOEIC SPEAKING 2시간, MULTIMEDIA, LET'S TALK로 진행된다. 멀티미디어 수업에서는 팝송을 하나 정해 그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마지막 날 공개하는 수업인데 올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LET'S TALK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회화를 교재로 공부하는 수업이다. 토익 스피킹 시간에는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 차례대로 공부하며 실제 토익스피킹 시험과 유사하게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가 진행된다. 모든 강사님이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며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여도 기다려주시며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하신다. 만약 강사님이나 교재의 레벨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초반에 변경을 할 수도 있다.</p>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 비용 등 - GETTING TO KNOW : 필리핀에 온 두 번째 날 진행된 활동으로 학생들끼리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사용한 게임과 조별로 진행되는 게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ER FESTIVAL : 첫 번째 금요일 행사로 선생님들께서 전통 사탕 만들기, 사격 게임, 다트, 비즈팔찌 만들기, 포토 부스 등 다양한 부스를 진행해 체험하고 오후에는 각 학교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 SINAGTALA : 첫 번째 주말 Activity로 리조트에서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BPSU Intercultural : BPSU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소통하며 친해질 기회였다. - Sports Festival : 두 번째 금요일 행사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다트, 피구 종목이 있다. - Yacht Tour : 마지막 주말 활동으로 수빅에서 요트투어가 진행되었다. 약 2시간 요트투어 후 저녁 시간까지 수빅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짐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리가 가는 시기가 우기라고 하여 가기 전에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첫 번째 주말 비가 많이 왔고 남은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어디를 가나 실내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생각보다 덥지 않았고 한국과 비슷한 기후라고 생각한다.
안전	숙소 앞에 항상 가드분들이 있으시며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밖에도 주로 백화점이나 유명한 곳들만 찾아다니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다.
숙소	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숙소는 리조트를 사용하였고 3인 1실이었으며 각자 침대가 제공되었고 매주 화, 목, 토에 청소와 빨래를 해주셔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식사	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식사는 주로 카페테리아를 이용하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제공되며 한식 위주의 메뉴와 한가지 정도의 필리핀 음식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맛있었다.
교통	숙소에서 밖으로 나갈 때 주로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을 사용하였는데 오토바이에 마차 같은 것을 연결한 것으로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멀리 가더라도 약 100페소 정도로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약 4000페소	
생활비	약 13000페소	
합계	약 1,08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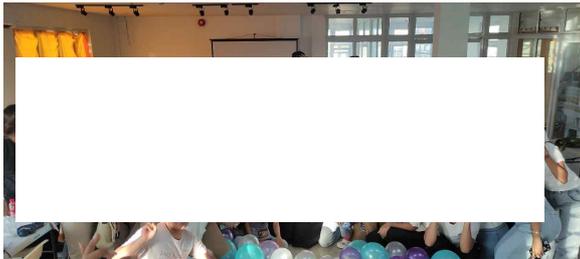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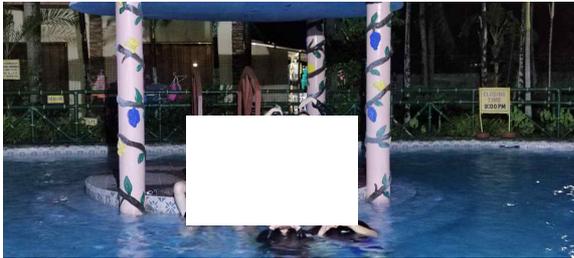
본인이 평소에 먹는 약들 꼭 챙겨가기, 한국에서는 안 아팠어도 가서 물갈이를 할 수 있으니 약을 챙기고, 실외는 덥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긴 옷이나 외투를 챙길 것.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넉넉하게 환전을 해갈 것. 짐을 쌀 때 수건이나 세면도구를 가져간다면 가서 쓰고 버릴만한 것을 가져가 올 때 캐리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노트북이나 패드를 평소에 잘 사용한다면 가져가도 되지만 하루종일 수업하고 밖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빈도가 낮아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다. 한국 음식이나 특히 라면과 같은 것들은 앞에 마트에 굉장히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신청을 할 때만 해도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이런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타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고 그다음엔 나의 영어 실력이 너무 기초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녀온 후 느낀 점은 갔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가서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여 유창하게 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영어는 자신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오히려 천천히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해 준다. 선생님들과의 수업에서도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천천히, 더 쉬운 단어로 설명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3주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하니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거 같다. 확실히 하루 종일 영어를 듣다 보니 듣기 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진 게 처음에는 수업에서 절반 정도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에는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뜻이 다 이해된다는 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이 친구들과 같이 신청한 게 아니라 혼자 오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지내다 보니 다들 너무 좋은 친구들이며 소중한 친구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기로 타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향후 영어 실력을 더 키워 각국을 여행하며 체험해 보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BPSU에서 현지 친구들과 만남</p>	<p>SM Mall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집</p>
	
<p>카페테리아 식사</p>	<p>숙소 수영장</p>
	
<p>수빅베이 노을</p>	<p>비스타 몰에서 영화관람</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업 공간이 우리 대학교처럼 강의실 혹은 단과대 별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독서실처럼 개인의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수업을 들었기에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대학보다 센터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p> <p>위치는 비교적 외곽에 있지만 대학 내에 수영장도 있고, 주말에는 외부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큰 아쉬움 없이 즐겁게 보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마트 같은 곳이 있어 생필품이나 음식 구매 및 쇼핑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필리핀의 주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을 약 10분 정도 타고 가면 카페나 식당, 큰 쇼핑몰, 시청 등 다양한 곳 방문이 가능하다.</p>
수업	<p>수업 첫날 수준별 분반을 위해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용할 교재 및 그룹이 결정되며,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1:1 수업 3시간, 그룹 수업 4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1:1 수업 시간에는 주로 기초 영어회화, reading 공부를 했다. 그룹 수업 시간에는 토익 스피킹, 토픽에 대한 가벼운 프리토킹을 통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 수업 시간은 길지만 내용이 엄청 타이트하지는 않아 괜찮았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 머물다 보니, 과제가 거의 없었다. 다만, 미디어 수업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학생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셔서 자연스럽게 현지인 선생님들과 일상 대화를 매일 하다 보니 영어구사력이 늘었다.</p>
Activity	<p><평일 액티비티></p> <p>summer festival :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부스를 학생이 체험한다. 필리핀식 캔디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이 있다.</p> <p>getting to know : 간단한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다. EX) 공 넘기며 서로의 이름 맞추기</p>

	<p>broom making : 필리핀식 빗자루를 만든다. group dynamics : 게임하며 서로 더 친해지는 시간이다. EX) 사진 속 자세를 그룹끼리 따라 하기</p> <p><주말 액티비티> 개인적으로, 하늘자전거와 수영장을 추천한다. 하늘자전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 스릴을 느꼈기에 기억에 남고, 수영장은 수영장 너머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기억에 남는다. 수영장이 크게 두 곳 있는데, 두 곳 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꼭 모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짚라인 같은 액티비티 활동은 돈을 내야 하며(액티비티 두 개에 500페소로 기억합니다.), 수영장은 무료다. 기본적으로 수영복, 선크림, 갓과 다닐 미니 백 정도가 준비물이라 생각한다.</p> <p>Yatch tour : 요트를 타고 1~2시간 정도 즐긴다. 요트 위에서 내려다보는 물이 굉장히 맑고, 주변 섬이나 푸릇한 나무들도 너무 예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멀미하는 친구들이 많아 엄청 고생했다. 요트투어 이후에는 8시까지 자유시간을 주기에 수빅 투어를 할 수 있으며, 수빅베이 근처에 기념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수빅베이 근처를 추천한다. 준비물은 멀미를 한다면 꼭 멀미약이 필요하다고 본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도착 후 첫째 주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왔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비가 거의 안 와서 좋았다. 비가 안 오면 날씨가 더우며, 체감상 한국 여름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다.
안전	학교 내부에 가드가 있고, 외출 시에는 트라이시클까지 잡아주시기 때문에 학교 주변은 안전하다고 본다. 3주 동안 도난이나 피해 입은 일 또한 없었다. 하지만 해외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항상 소지품을 가방 안에 넣어 두고 다녔으며, 아무리 늦어도 10시에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큰 기대 없이 온다면 괜찮다. 하지만 바퀴벌레나 도마뱀, 하지만, 거미줄이 있어서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곤란할 수 있다. 또한, 샤워기 수압이 상당히 약해서 바가지로 물을 받아 샤워했다. 이 부분은 좀 답답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기 때문에 청결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했다.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점심은 무조건 기숙사 식당에서 해결하였고, 무난한 한식이 나온다. 저녁은 거의 밖에서 사 먹었는데, 현지 음식은 입에 잘 맞지는 않아 주로 고기, 양식을 사 먹었다. 그냥 무난합니다.</p> <p>가장 맛있었던 것은 망고스틴이다! 새콤달달한 거 좋아한다면 망고스틴을 정말 추천한다.</p>
교통	<p>요트투어 때 택시 두 번 타본 것을 제외하면 항상 트라이시클을 탔다. 거의 10분 내에 잡히며, 기숙사에서 sm 물, 시청 등 모든 장소를 60~100페소에 이동하였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602,325 (450달러)	식비, 개인 물품 쇼핑, 기념품, 마사지 등
합계	1,283,915	

5. 출국 전 준비사항

<p>1. 상비약 준비</p> <p>평소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약을 아예 챙겨가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에 감기도 걸리고, 설사도 계속해서 친구들이 남는 감기약과 지사제를 주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상비약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p> <p>2. 보조배터리</p> <p>너무 기본적인 수도 있지만, 본인은 까먹고 못 가져갔다. 생각보다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너무 부족했다. 따라서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p> <p>3. 선크림</p>
--

8월달 필리핀 햇빛은 꽤 뜨겁다. 따라서 선크림을 필수로 챙기는 것을 권유한다.

4. 동전지갑

필리핀에서 거스름돈으로 동전 폐소를 정말 많이 받았다. 한국보다 동전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고, 현금을 사용하실 분이라면 동전지갑도 권유한다.

5. 선생님께 드릴 선물(참고 1:1 선생님 3명, 그룹 선생님 3명)

3주 동안 같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서 떠날 때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따라서 근처 쇼핑몰에서 선물을 샀는데, 한국 선물을 준비한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필리핀에 가기 전에는 선생님 선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국에서는 영어로 말할 일도 많이 없고, 현지인과 대화할 일은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나에게 영어 스피킹은 많이 낮은 존재였으며, 수업 첫째 주에는 영어로 말을 내뱉는 내가 너무 어색했다. 하지만 매일 말을 하다 보니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표현을 찾아보거나 자발적으로 발음을 연습해 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음을 느꼈으며, 이렇게 영어로 말해야 하는 환경은 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학구열이 생기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또한, 필리핀에서 겪었던 경험이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 그들만의 문화, 자연환경을 통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원동력일 될 것이라고 보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을 체감하게 되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순천향 학우들에게 추천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트라이시클



sinagtala 수영장에서 본 경관



수업 장소(칸막이 비슷한 것으로 분별)



기숙사



요트투어



노을이 예쁜 수빅베이



수빅베이 기념품



건물이 예쁜 시청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황xx	학번	2023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전체적으로 큰 공간을 여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파견 대학교 위치도 교통이 편리하였고 여러 편의 시설과 근접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서로 친하시고 장난스러운 편안한 분위기였어서 담당 선생님이 아니어도 인사를 나누고 가까워질수 있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수업을 했고 그중 4시간은 그룹 수업, 3시간은 개인 수업을 했습니다. 리딩, 리스닝, 프리토크, 토익 스피킹, 멀티미디어 클래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사용량을 늘리고 익혔습니다. 수업마다 숙제나 내용 등이 달랐지만 저는 대부분 숙제는 없었고 말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수업마다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가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수업 준비를 해두시고 기다리셨고 막힘없이 수업을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주제로 대화할지에 대한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영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내용 등 심도 깊은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p>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주에는 비가 와서 서머 페스티벌로 필리핀 문화를 경험할수 있게 준비해두신 부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장기자랑을 준비해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에는 시나그탈라에 가서 줘라인, 바이크, 스윙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수 있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500페소 정도와 점심값 그리고 물놀이 할 준비물 등을 챙겼습니다.</p> <p>두 번째주에는 스포츠 페스티벌을 해서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팀을 나눠 여러 스포츠를 즐기고 팀워크를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말에는 수빅 베이에 가서 요트 투어와 바닷가 구경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물에 가고 카페나 카지노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첫주 동안은 내내 비가 왔고 약간 습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늘 빵빵하게 켜놓고 있기 때문에 겉옷과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데 항상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며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우산을 양산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가끔 길을 잘못 들어 새로운 길을 갈 때 현지인들이 사는 골목으로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이 으스스하거나 위생상태가 안좋아 보이는 집들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후 불빛이 많이 없는 곳을 갈때는 2,3명이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곳곳에 시티 마셜 경찰분들이 있긴 하지만 없는 길을 갈때는 위험할수도 있습니다.</p>
숙소	<p>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의 에어컨이 잘작동하지 않고 번기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한동안 좀 불편했지만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빠르게 고쳐 주셨습니다. 2일에 한번씩 청소, 빨래 해주셔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점호 시간 30분 전까지 수영장도 사용할수 있어서 점호 후에도 씻고 잘수 있었습니다. 술 반입 금지 남녀 출입 금지 등의 규칙이 있어서 선이 잘 지켜질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p>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은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였고 저녁은 기숙사 식당 또는 외부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프렌차이즈 식당 또는 몰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이 많아서 그 뒤로는 로컬 식당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도로까지 나가면 시티 마셜 경찰 분들이 어디로 갈지 물어보고 트라이시클을 잡아주십니다. 15분 거리까지는 어디든지 지도를 보여드리고 갈수 있었고 웬만하면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경찰분들이 가격 측정도 해주시니 돌아올때만 흥정해서 오면 됩니다. 보통 저녁에 더 가격이 올라서 10페소 정도 더 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00달러	식비,기념품 등
선물	1000페소	한국과자 선생님들께
합계	554,25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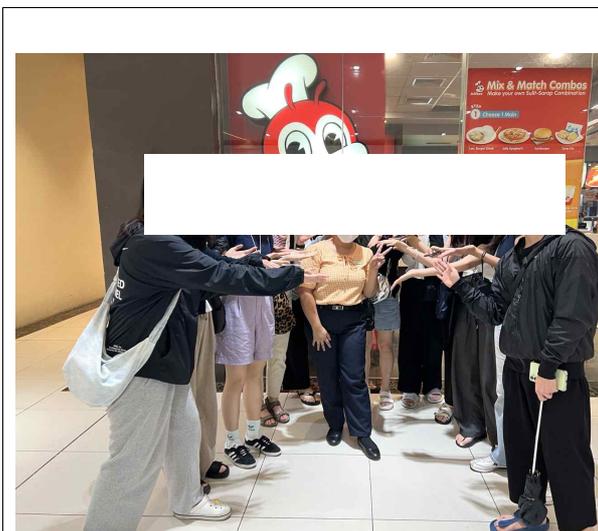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벌레 퇴치제, 선크림은 필수이다. 우산과 겂옷도 최대한 챙기자. 지사제와 진통제 등 필요한 약은 챙기자. 샴푸나 바디워시 등 룸메와 나눠서 가져오거나 작은 양으로 쓸만큼만 와서 사고 버리고 가라. 기념품을 많이 사올거면 무게를 최대한 적게 들고 오거나 여분의 캐리어를 가져와라. 물은 식당에서 주는거 먹지 말고 물병으로 된거 사서 먹자. 휴지는 3주동안 3명이서 12개가 적당했다. 수건 등 버릴 것을 가져오는게 좋다. 노트북, 아이패드 무게만 나가고 가져올 필요 없다. 동전 지갑을 가져오는게 좋다. 슈르를 챙겨라. 신발은 샌들 슬리퍼 등 여러개가 필요하다.</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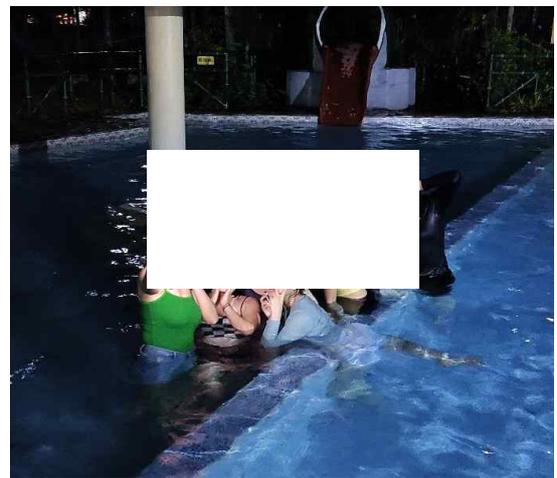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영어 향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나도 행복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다. 동남아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순수한 사람들과 밝은 미소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잊지 못할 것 같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다르더라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과 진심이 와닿아서 금세 선생님들과 가까워질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기에 더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또 받아들일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누군가가 바라던 것이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누리고 산 만큼 더 열심히 살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욕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게 학업이던 알바던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생일 기념 사진 한컷



단체수영



BGS got Talent 우승



시나그탈라 스윙



인터컬쳐데이 BRPSU 학생들과



수빅베이 요트투어